

전방위적 복지정책 '빛났다'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순창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최영일 순창군수

최영일 순창군수의 혁신적인 복지 정책이 전국적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순창군은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한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김해 인제대학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우수 공약과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

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순창군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도내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순창군은 '요양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로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이날 최군수가 발표한 정책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복지 정책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군은 △아동행복수당 지급을 통한 양육 부담 경감 △농촌유학 활성화로 지역 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으로 청년층 정착 유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후 생활 지원 △노인 이·미용사업, 목욕비 지원 등 세심한 노인 복지 실현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군은 올해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한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도 최우수(SA) 등급을 받아, 79개 공약사업에 대한 특심 있는 추진력을 입증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형식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한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매우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순창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서 10월 3-6일 개최

남원시가 오는 10월 3일에서 6일까지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4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하 로봇)'을 개최할 예정이다.

로봇은 크게 △2024 국제드론·로봇 레저스포츠 대회 △2024 남원 드론·로봇 전시 체험 & 컨퍼런스 △2024 남원 드론공연&체험 페스티벌 △2024 남원 글이중예 드론·로봇 레저스포츠 대회는 크게 5개 분야로 △레이싱 △축구 △농구 △메이커스(코딩) △로봇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분야의 대회를 볼 수 있다.

드론레이싱 분야는 전 세계 15개국 100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FAI 드론레이싱 마스터스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국제경기뿐 아니라 드론 실증도시 남원형 드론레이싱 시범경기 역시 종합스포츠타운에서 펼쳐지며 FAI 드론레이싱 대회와는 또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드론축구는 국토부 장관기 초·중·

고 전국 드론 축구대회가 10월 3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전국 초·중·고 240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전국 56팀 560여명이 참여하는 남원시 장배 전국드론축구 대항전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드론메이커스 대회(코딩)는 S/W미래체육 전북, 경남, 대구 센터에서 주관해 10월 4일에서 5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게이트볼장에서 진행되며, 전북, 대구, 경남지역 초·중학생 140여명이 드론의 코딩 능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북대, 군산대 SW중심대학 교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대학부에서 한층 더 수준 높은 드론 코딩을 관람할 수 있다.

드론 농구대회는 현장에서 남녀노소 구분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드론스포츠 대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청년정책 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남원 청년마루에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협의체 위원, 남원시의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남원시청년기본계획에 대한 '청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청년에게 묻고 청년이 답한다' 주제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그 어느때 보다 소멸위기 지역을 이끌어 갈 청년인재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체감한 시간이었다.

지난달 용역이 완료된 남원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는 '기회와 성장의 도시, 청년동행 남원'을 만들기 위해 △재직·창업·창업 기반조성(일자리)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주거·양육) △역량개발 기회 확대(교육·문화) △자립지원 및 생활수준 향상(금융·복지) △교류 및 관계망 형성 기회 확대(참여·관계망)의 5대 영역에 대해 66개 청년정책을 제안하여 청년기의 방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장년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청년정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2024~2027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설명 △2025년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관련 토의 △제3기 청년협의체 운영방안 개선 방안 등 본격적 추진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아쿠아페스티벌 '인기'

개장 이후 5일간 3500명 방문

폭죽 쬐는 무더위 속 신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임실군의 대표적 여름 축제인 임실 아쿠아페스티벌이 지난달 27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잠미원 이벤트 광장에서 개장했다.

임실 아쿠아페스티벌은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장 이후 5일간 3,500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행사장을 찾는 열기가 아주 뜨겁다.

올해는 높이 약 10m, 길이 50m의 초대형 슬라이드로 이용객들에게 엄청난 스릴감을 선사하는 한편, 대형풀, 중형풀, 유아풀, 바나나 보트 등 다채로운

시설로 운영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늘어난 몽골텐트, 파라솔, 캠핑형 텐트 등으로 다양한 쉼터를 마련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타의설, 매점, 푸드트럭 등도 운영 중이다.

주말마다 행사장 내 공연무대에서는 어린이 DJ 풀파티와 아쿠아댄스 등 다양한 공연 진행으로 어린이 및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한여름 더위를 날릴 다양한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군은 안전한 물놀이장이 되도록 청소 및 소독 등의 수질 관리는 물론 안전요원과 응급치료 인력 등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실 아쿠아페스티벌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최대수용인원은 1,000명, 입장료는 일반인 8천원, 임실군민은 6천원이고, 오후 2시 이후에는 기존 입장료에 2천원 추가할인을 진행한다.

입장료 구매 시 교환권 2천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교환권은 행사장 내 매점 또는 치즈테마파크 내 지정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GAP 인증 농산물 확대 추진

순창군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확대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군은 농산물의 안전성, 농업환경보전, 농작업자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신뢰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GAP 농산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유통단계에서 농약과 유해미생물로 인한 오염을 차단해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순창군의 GAP 인증 농가는 849농가로, 두릅·쌈채소·과수 등 다양

한 농산물에 대해 548.3ha 면적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특히 군은 GAP 인증 심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 이러한 노력으로 매년 GAP 인증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은 GAP 인증 확대를 통해 농업 환경 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토양, 용수,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GAP 인증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평생학습도시 2회 연속 지정

남원시가 지난 2021년 재지정에 이어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 평가에 2회 연속 지정됐다.

재지정 평가는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의 발전과 지역의 체제적인 질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3년 주기로 순환 진행되는 평가로, 이번 평가는 총 64개의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추진체계와 사업 운영 및 성과 영역 등이 심사됐으며, 남원시는 △지역민을 위한 열린 지역 평생학습센터 구축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협력 △체계적인 프로그램 고도화로 학습자의 성취감 고취 등 추진체계와 사업

운영 성과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이번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평생교육 공모사업 참여 및 지속적인 사업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우수한 점으로 평가된 내용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한층 고도화된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특화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촘촘한 평생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수상(2023년) △2024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수상(2024년) 등 2회 연속 수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우수성과를 입증한 바 있다.

양효상 교육체육과장은 "지난 2021년 이어 2회 연속 재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며, "공평한 학습 기회가 주어지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회의 가져

남원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로, 민선8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아동 관련 기관·단체장, 학부모 대표 등 아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임, 아동권리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방향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남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남원시 지역사회 아동권리 현황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특히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운영 △아동권리교육 △아동친화 4개년 계획 수립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드림스타트, 금융교육·물놀이 체험 즐겨

임실군이 지난달 30일 드림스타트 아동 4~5학년 25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물결 타고 꿈을 향해 go~'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추진, 아이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먼저 오전엔 KSD나눔재단 연례로 '용돈축축 금융똥똥!'이라는 주제로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경제금융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오후엔 장수군에 위치한 수상 보트장을 찾아 수상보트와 물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아동들에게 신나는 여름을 선물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